

전주 원도심 초등생 수 급감 멈춰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전주시 원도심 초등학생 수 급감 현상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오창환)는 15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오창환 상임의장을 비롯한 지표총괄위원들이 각 분야별 평가결과와 브랜드지표선정발표, 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전주시가

전주시지속가능지표 종합평가결과 발표 6개 분과로 나눠 35개 지표 평가 이뤄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 지속가능지표는 △더불어 사는 전주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 △살맛나는 전주 △맑고 푸른 전주 △

건강 싶은 전주 △재미나는 전주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총 35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지속가능협의회는 또, 올해 지표평가 8년차를 맞아 각 분야별 지표에 대한 연계성을 분석해 전주시에 대한 종합평가와 비전

도 제시했다. 특히 평가결과에서 전주시 전체적인 초등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초등학생들의 급격한 학생 수 감소는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도심의 대표적인 A학교의 경우 지난 2012년 전년대비 14.5%의 감소율을 보이던 학생수가 2013년 10.1%, 2014년 8.4%, 지난해 5.4%로 감소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원도심 학교 등 전주의 교육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원도심교육공동체운동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가운데 휴가철과 축제기간 등에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지표인 자원봉사자 수도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연계가 약화되는 사회현실과는 다른 결과로 전주의 큰 희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전주시가 경제적,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주시와 전주의 구성원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주의 행복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위해 전주시, 의회,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모두가 협력과 연대로 공동체를 위한 실천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오창환 상임의장을 비롯한 지표총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센트럴가구몰류 전주전시장은 여름맞이 정기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센트럴가구몰류 전주전시장 할인행사

이달 말까지

가구유통 전문기업 '센트럴가구몰류 전주전시장(완주군 이서면 은교장동길20·070 4225 6914)'이 여름맞이 정기할인행사를 실시한다.

15일 센트럴가구몰류는 이달 말까지 소파와 침대, 장롱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할인율은 소파 10~30%, 침대 20~40%, 장롱 20~50%, 원목 가구 20~30% 등이다. 할인 적용에 따라 이 매장에서 소파는 최저가 13만원, 침대는 12만7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또 일부 전시 제품은 원가 방출로 천연가죽소파의 경

우 50만원대부터 구매 가능하다.

센트럴가구몰류는 원목 가구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사 공장과 10여 개 소파, 침대 등을 만드는 공장이나 유통사를 연결시켜 가격 거품을 뺐다. 제품과 관련한 문의는 070 4225 6914, 070 5029 6019로 하면 된다.

김동혁 센트럴가구몰류 대표는 "전주가구전시장은 품질과 가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전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가구 구매를 위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기 할인 행사를 통해 실속있는 구매가 이뤄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자동차 알루미늄 휠 홈친 일당 여죄 추가로 드러나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훔쳐 수사를 받던 일당의 여죄가 경찰의 수사 끝에 추가로 드러났다.

김제경찰서는 15일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 중인 A(40)씨 등 3명의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경 김제시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불량판정을 받은 차량용 알루미늄 휠 150개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조사에서 이들은 차량용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을 복원시켜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다 회사의 경영난에 불량품을 살 돈마저 없어 알루미늄 휠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전주기업인 단체,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 재개 촉구

전주지역 기업인단체들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했다.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회장 소대성)는 15일 24개 회원사 대표이 한데 모여 한국은행의 지역차별 정책 중단과 전북본부 화폐 수급업무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화폐수급 업무의 필요성이 가장 큰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화폐수급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지역 기업인들로서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기업은행 본부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전주시의 미래 금융산업특화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복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 지역경제를 전국에 수준

에 올려야 하는 형편인데도 화폐수급마저 중단한다면 지역발전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화폐수급업무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전주우수업체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협의회장 명의로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요청하는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소대성 회장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화폐수급업무가 개시된다면 전북도의 금융 및 경제상황이 활발해져 지역 내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 활성화 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공업단지협회(회장 이강진)도 전주산업단지 입주 73개 업체 중지를 모은 화폐수급 업무 재개 요청 건 공문을 발송했다. /김영재 기자

다단계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행간 다단계 업체 대표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대표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단계 업체 대표 최씨 일당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과 전주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 등급에 따라 회원비를 납부하면 쇼핑권, 입장권, 전화 영여 영업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여원을 가뭇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3시간 음주단속 27명 적발

경찰, 도내 114개소서... 17명 면허정지·9명 면허취소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2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밤 10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전 지역 총 114개소에서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총 308명을 동원해 일제히 음주단속을 통해 총 27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 17명은 면허정지, 9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음주무면허로 입건했다.

적발내역을 보면 면허정지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을 경우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날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시했다.

실제,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25분께 완주군 봉동읍에서이모(27)씨가 혈

중알코올농도 0.094%로 음주운전을 하다 전통휠체어를 타고 가던 50대 장애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이씨는 지난 5월 30일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0일 오전 5시 15분께 익산시 팔봉동에서 홍모(23)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홍씨 등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박모(25)씨는 사망했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